

‘사회악 처단’ 복수 쫓힌 K-드라마

‘더 글로리’·‘모범택시2’
용서 없는 사이다 결말 쾌감
자극적 표현 수위에는 우려

“사이다 같은 결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마라맛으로 상패 통쾌”.
20일 방송가에 따르면 용서 없는 독한 복수를 내세운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 이어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에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폭력 복수극인 ‘더 글로리’는 공개 첫 주 시청 시간 1억2,446만 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TV 부문 정상에 올랐고, 각종 범죄에 휘말린 억울한 피해자들의 복수를 대행해주는 ‘모범택시2’는 최근 자체 최고 시청률 16%를 기록하며 주말드라마 1위를 차지했다.
‘더 글로리’, ‘모범택시2’에 앞서도 복수극은 통쾌한 쾌감을 선사하며 인기를 끄는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과거에는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악인들을 감옥에 보내는 사회 정의 구현으로 복수극의 마침표를 찍었다면, 최근 복수극은 법의 울타리를 넘어 가해자나 범죄자를 파멸로 끌고 가는 사적 복수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더 글로리’는 학창 시절 고대기로 살을 지지는 등 괴롭힘을 주도한 주동자뿐 아니라 옆에서 이를 거들었던 가해자 모두와 이를 외면했던 선생님까지 죽음이나 신체 장기의 영구적 손상 등으로 내몬다.
‘모범택시2’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들을 해외에 감금하고 폭행한 취업 사기 조직, 아파트 불법 청약 브로커, 사이비 교주 등 극악무도한 악당(악당)들은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뿐 아니라 자신들이 행했던 폭행, 사기 등의 악행



SBS ‘모범택시2’ /SBS 제공

들을 고스란히 되돌려준다.
최향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더 글로리’나 ‘모범택시’의 공통점은 사회 정의 구현이 정부나 법에 따라 판결 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적으로 직접 복수를 한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나쁜 놈들은 내가 직접 잡는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는 공정성, 사회 정의 구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굉장히 누적된 상태”라며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는 믿음이 굉장히 열어지다 보니 법으로 응징하는 것보다 개인이 나서서 복수를 해버리는 데 훨씬 쾌감을 느끼는 측면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복수극의 소재도 다양해지고 있다.
원조 격 복수극으로 꼽히는 ‘아내의 유혹’(2008·SBS)을 시작으로 한동안 불륜이나 가족의 죽음 등 개인사에 한정된 복수극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다

크히어로’나 ‘괴짜’를 주인공으로 삼아 각종 사회악을 처단하는 복수극이 대세다.
연인을 죽인 진범을 쫓는 괴짜 변호사가 사회의 악자들 편에 서서 변호해주는 ‘천원짜리 변호사’(2022·SBS), 정치인을 조사하다 살해당한 검사가 인생 2회차를 다시 살며 악을 몰아내는 ‘어게인 마이 라이프’(2022·SBS) 등은 주인공의 사적 복수를 배경으로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는다.
다만 복수극이 쏟아져 나오면서 점점 세지는 표현 수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화정 드라마평론가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등장하고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표현이나 메시지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저 분노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다 보면 ‘왜 복수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잘 안 보일 수 있다. 현상 자체를 보여주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의미들을 담아내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존에 없었던 매력적인 악역 하고 싶었죠”

임지연 ‘더 글로리’ 박연진 역
캐릭터 매력...연기력도 극찬



배우 임지연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세상에 이보다 더 악독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악역 박연진을 연기한 임지연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쏠린 관심은 모두 캐릭터 덕분이라며 행복한 웃음을 보였다.
세상에 두려운 것 없는 인생을 사는 연진이는 복수를 하겠다며 찾아온 문동은(송혜교 분)을 비웃으며 화려한 인생을 계속 즐긴다. 부자집 사모님답게 우아하고, 잘 나가는 기상캐스터답게 도도하다.
극 중 연진이는 상스러운 욕을 잘지게 하고, 담배도 피우고, 불륜도 저지른다.
그는 “처음에는 사이코패스처럼 아무 감정이 없는 여자처럼 해보려고도 했고, 아예 미친 사람처럼 다가가 보려고도 했다”며 “기존에 없었던 임지연만이 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입체적인 악역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비웃음에 비아냥거리는 말투, 화가 나면 눈알을 굴리며 고래고래 악을 쓰다가도 수세에 몰리면 순간 태세 전환을 하고 상긋 웃는 얼굴의 연진이가 탄생했다.
캐릭터의 매력도 있지만, 임지연의 연기에도 극찬이 쏟아졌다. 임지연은 디테일을 살리려고 상황마다 다른 연기를 준비했다고 했다. “동은이한테 욕할 때는 정말 단전에서

부터 끌어내고, 친구들한테 할 때는 좀 더 자연스러운 제스처들을 넣었죠.”
임지연은 마지막 감옥에서 기상캐스터 연기를 할 때가 가장 힘들고 감정이 복잡했다고 했다. 이 장면은 복수의 마지막 종착지로 학창 시절 문동은을 괴롭혔던 연진이가 다른 수감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다.
연진이의 결말에 대해 임지연은 “어떤 가해자보다 최고의 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진이는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다 돌려받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겠죠.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심한 최고의 별 같아요. ‘연진스러운’ 별이죠.” /연합뉴스

KBS 주말극 시청률 부진… ‘삼남매’ 27.5% 종영

KBS 2TV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가 시청률 30%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방송된 ‘삼남매가 용감하게’ 최종회인 51회는 27.5%로 집계됐다.
최종회에서는 해피엔딩으로 꼭 채운 결말을 보여줬지만 출생의 비밀, 기억 상실 등 주말극의 클리셰가 반복된 데다, 이야기 전개가 늘어지면서 씁쓸함을 남겼다.
이때문에 지난해 9월 20.5%로 출발한 시청률은 드라마 초반 16.7%까지 떨어졌고, 끝내 30% 벽을 넘지 못했다. KBS 주말극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시청률 보증수표’로 불리며 30~40%대 시청률을 유지해왔지만,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0년대에는 ‘내 딸 서영이’(2012~2013)



KBS 2TV ‘삼남매가 용감하게’ /KBS 2TV 제공

47.6%, ‘왕가네 식구들’(2013~2014) 48.3%, ‘하나뿐인 내편’(2018~2019) 49.4% 등 자체 최고 시청률이 50%대에 육박한 드라마가 나왔지만, 2020년대에는 40% 벽조차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

트와이스 미니 12집 ‘빌보드 200’ 2위

K팝 걸그룹 두 번째
최고순위는 블랙핑크

걸그룹 트와이스의 미니 12집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2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19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트와이스의 ‘레디 투 비’(READY TO BE)가 ‘빌보드 200’에 2위로 진입했다고 전했다.
‘레디 투 비’는 미국에서 15만3,000장 상당

의 음반 판매고를 올렸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정규 3집 ‘포뮬러 오브 러브 : O+T=<3’ (Formula of Love : O+T=<3)와 미니 11집 ‘벤티윈 원테두’(BETWEEN 1&2)로 세운 ‘빌보드 200’ 3위 기록을 넘어 자체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트와이스는 2020년 블랙핑크가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으로 ‘빌보드 200’에서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K팝 걸그룹으로서는 두 번째로 2위에 올랐다. 현재 ‘빌보드 200’ K팝 걸

그룹 최고 순위는 블랙핑크가 지난해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로 세운 1위다.
트와이스는 ‘빌보드 200’ 6위에 올랐던 미니 10집 ‘테이스트 오브 러브’(Taste of Love)까지 포함하면 총 4개의 음반을 ‘빌보드 200’ 톱 10에 올려놨다.
이번 음반까지 총 6개의 음반을 ‘빌보드 200’ 입성시키면서 빌보드 200에 진입한 음반이 가장 많은 K팝 걸그룹이라는 수식어를 지켜냈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KBS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동행 11:50 안녕 우리말 12:00 KBS뉴스12 1:00 세상다변사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0 KBS뉴스 2:10 생로병사의 비밀 3:00 영상앨범 산 3:30 천상의 결핵선 베스트 4:00 사사건건 5:00 KBS뉴스5 5:30 동물의 왕국 6:00 6시 내고향 7:00 KBS뉴스7 7:40 이웃집 찰스 8:30 내 눈에 콩깍지 9:00 KBS뉴스9 10:00 시사기획 창 10:50 더 라이브 11:30 KBS뉴스라인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볼만한 아침 1부 8:05 해 볼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 타임 9:20 내눈에 콩깍지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오아시스 12:15 개는 훌륭하다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0 KBS 뉴스타임 3:10 두리동심 풍계공정3 3:30 TV 유치원 4:00 세상을 건다 스페셜 4: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5:50 통합뉴스룸ET 6:30 2TV 생생정보 7:50 비밀의 여자 8: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9:50 오아시스 11:00 살림하는 남자들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매녀의 게임 7:40 MBC 뉴스데스크 9:00 PD수첩 10:00 헛바닥 종합격투기 11:30 100분 토론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매녀의 게임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좋은 날 10:45 뽀빠뽀 좋아 11:15 헬로키즈 체육교실 11:30 반짝이는 프리채널 12:00 12 MBC 뉴스 12:25 출발! 비디오 여행 1:20 글로벌 동물 뉴스 1:55 2시 뉴스의전 3:55 기분 좋은 날 4:55 5 MBC 뉴스 5:10 일타강사 스페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살맛나는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00 SBS 12뉴스 12:45 꽃선비 열애사 2:00 뉴스브라방 4:00 줄은온인 스페셜 5:00 SBS 오뉴스 5:50 TV 동물농장 6:50 생방송 투데이 7:30 SBS 8 뉴스 8:00 세상을 이끈일이 10:00 꽃선비 열애사 11: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6:10 세계테마기행 7:00 뽀빠뽀 뽀로로 7:15 우당탕탕 온화안전단 7:45 뽀빠뽀 뽀로로 8:00 당돌당 유치원 8:20 출동! 슈퍼걸 9:05 슈퍼두더 영글리시 9:20 빅 블루 10:10 한국의 둘레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00 바닷가 사람들 2:45 한국의 둘레길 3:35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4:05 영어 스토리 타임 4:15 페피피 5:00 EBS 뉴스 6:00 로보카폴리 7:00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7:30 한국의 둘레길 7:50 극한직업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EBS 다큐프라임 10:45 건축탐구 집 11:55 클라세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3월 21일 (음력 2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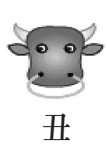
48년생 맞서면 싸움만 커진다. 60년생 쉽게 정을 주지 마라. 72년생 불필요한 연행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 84년생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긴다.



52년생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64년생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멈춰라. 76년생 피곤이 누적되지 않게 휴식하라. 88년생 상대에게 먼저 마음을 열라.



44년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된다. 56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다. 68년생 현실에 만족하고 상황을 받아들여라. 80년생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이룬다.



49년생 사람과의 약속은 지켜라. 61년생 금전거래는 피하라. 73년생 원하는 것을 얻으니 축하받는다. 85년생 시작만 있고 끝이 없다.



41년생 친구들과 수다로 하루를 보낸다. 53년생 적절한 선을 유지하라. 65년생 움직이는 만큼 얻는다. 77년생 인사가 밝아 여거지기 인기가.



45년생 늙은 아랑으로 양보하라. 57년생 현명한 자는 평화를 보장한다. 69년생 지난 일은 잊고 다시 심기 일전하라. 81년생 동료의 배신을 조심하라.



50년생 사소한 근심거리 생긴다. 62년생 작은 금전 지출이 생긴다. 74년생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86년생 밀고 나가 추진하라.



42년생 욕심이 화를 부른다. 54년생 우순은 상황으로 이어지니 나서지 마라. 66년생 지금의 위기가 전화위복이 된다. 78년생 할 말이 있어도 참아라.



46년생 연행을 조심해야대접 받는다. 58년생 돈이 인생의 전부 아니다. 70년생 뜻도 이루고 재물도 얻는다. 82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51년생 잔소리는 사이를 불편하게 만든다. 63년생 할 말이 있어도 오늘은 참아라. 75년생 활동량은 많으나 소득은 없다. 87년생 꿈은 크게 가져라.



43년생 허세 부리다 구설 생기기 조심하라. 55년생 과로 과식하지 마라. 67년생 굴러들어온 복을 버리지 마라. 79년생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라.



47년생 음지가 양이 되는 날이다. 59년생 정정당당하게 정면 대면하라. 71년생 덕을 쌓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 있다. 83년생 정의는 반드시 성공한다.